

석사학위 논문

사설시조의 주제구현 방식 연구

박 영 민

2011년 8월 고전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조해숙 선생님

이 논문은 발화의 시점과 시적 태도를 기준으로 사설시조를 재검토함으로써 사설시조 이해의 실질을 마련하고 사설시조에 반영된 조선 후기의 문학사적 전환을 고찰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기왕의 사설시조 연구에서는 사설시조를 둘러싼 문학 외적 조건들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기해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연구들에 대한 반성과 평가를 진행하면서 사설시조 작품을 면밀하게 이해하려는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연구들이 제출되기도 했다. 본고에서도 최근의 문제제기에 공감하여 사설시조를 면밀하게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본고의 논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설시조 발화의 시점과 시적 태도를 검토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사설시조의 주제구현 방식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개별 작품의 완결성, 사설시조 갈래의 전체성, 그리고 사설시조 갈래의 시대성에 유의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설시조는 다층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갈래로 파악될 것이며, 이와 같은 사설시조 갈래의 다층적인 특징은 조선후기의 문학사적 전환을 고찰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논의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발화의 시점과 시적 태도와 관련된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발화의 시점과 관련해서는

화자와 초점자의 개념을 정립해 보고자 하였다. 그것은 '내적 발화/외적 발화', 그리고 '비인물 초점화/인물 초점화'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내적 발화-비인물 초점화', '내적 발화-인물 초점화', 그리고 '외적 발화-비인물 초점화', '외적 발화-인물 초점화'의 네 가지 유형을 설정해 볼 수 있었다. 이렇게 화자와 세계 사이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사실시조 화자의 유형은 일곱 가지로 파악된다. '서정적-화자', '주인공-화자', '관찰자-화자', 그리고 '카메라-화자', '논평자-화자', '전지자-화자', '제시자-화자'의 일곱 가지가 그것이다.

다음으로 시적 태도와 관련해서는 '동화/이화'의 개념을 정립하고, 작품의 실제적 층위에서 그것이 구현되는 방식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다. 먼저, '내적 발화'에서는 '동화'적 태도를 지향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동화'적 태도를 유지하는 유형과 '동화'적 태도와 '이화'적 태도가 혼효되어 나타나는 유형을 대별해 볼 수 있었다. 반면, '외적 발화'에서는 '이화'적 태도를 지향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이들도 구체적으로 보면 '이화'적 태도를 유지하는 유형과 '이화'적 태도에서 '동화'적 태도로 이행하는 유형, 그리고 '이화'적 태도와 '동화'적 태도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유형으로 세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발화의 시점과 시적 태도를 기준으로 사실시조의 주제구현 방식을 분석하였다. '내적 발화' 사실시조 중, '동화'적 태도를 유지하는 유형에서는 화자의 내면을 구체적으로 재현한다. '이화'적 태도와 혼효가 이루어지는 유형에서는 간접적 제시와 희극적 변형을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간접화하고, 화자의 내면을 순화한다. '외적 발화' 사실시조 중, '이화'적 태도를 유지하는 유형에서는 객관적 형상화를 통하여 당대의 부정적 단면에 대한 반성적 인식을 이끌어낸다. 또한 '동화'적 태도로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유형에서는 윤리적 평가를 지양함으로써 결핍된 존재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동화'적 태도와 결합이 이루어지는 유형에서는 보편적 문제에 대하여 거리를 두고 발화함으로써 자기에게 닥친

슬픔을 보편적 인간의 차원에서 토로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사설시조는 자아의 내면을 표출하고자 하는 주제의식과 외면적 세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의식을 중층적으로 구현하는 갈래이다. 이러한 중층적 주제의식은 자아가 자기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설시조에서는 자아를 외적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해명하고자 하는 특징을 드러내기도 한다. ‘내적 발화’ 사설시조는 자아를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재현하고, ‘외적 발화’ 사설시조는 자아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재현하는 것이다. 이렇듯 자아의 자기표현을 중시하면서도, 자아를 외적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해명하고자 하는 것은 서정시로서의 유사성을 지향하는 중세적 특징과 재현의 담론을 지향하는 이행기적 특징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후기의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문학적 대응으로서 사설시조는 기본적으로 서정을 갈래상의 주도적인 특징으로 하면서도, 서정성의 확장을 이룩함으로써 서사성을 지향하게 된 시가 갈래였다고 할 수 있다.